

광주상의 회장선거 박흥석-김상열 2파전

〈현 광주상의 회장〉 〈호반건설 회장〉

원로그룹 “박회장 연임” vs 젊은층 “분위기 쇠신”

회장단 “합의 추대” 의견 모아... 다음달 중순 선거

오는 3월 치러질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는 박흥석(력기산업 회장) 현 광주상의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 회장의 연임 의지가 강한데다, 김 회장도 다른 후보보다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지역 경제계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두 후보 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출마 방식이다. 최근 두 후보가 모두 참여한 회장단 회의에서 경선보다 ‘합의 추대’에 의견이 모인 만큼, ‘누가 양보하느냐’가 차기 회장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제22대 광주

상의 회장 선거는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거쳐 공고시기를 조율한 뒤 3월 중순께 치러진다. 이 때문에 설 연휴 기간 동안 두 후보 모두 표심 다지기는 물론,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회장 선거를 놓고, ‘합의 추대’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박 회장과 김 회장 모두 추대 방식에 동의한 뒤,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했다”며 “막장토론을 해서라도 한 명의 후보를 추대하는 식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현재 팽팽하다. 지난 2009년 보궐선거로 회장직을 맡은 뒤 5년 넘게 광주상의를 이끌어온 박 회장은 본업인 력기산업보다 광주상의 회장직에 공을 들여 광주상의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역할을 꾸준히 해 온 것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상의 회원 가운데 원로 그룹은 박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비교적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이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분위기 쇠신 차원이기도 하다. 김 회장의 사업 역량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광주에서 출발한 호반건설을 주택 공급량

전국 5위권의 건설사로 성장시킨 김 회장이 광주상의 회장을 맡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동안 광주상의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두 후보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현재 그룹 재건에 몰두하면서 회장 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광주의 경제규모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광주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며 “광주상의는 광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만큼 이에 걸맞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장으로 뽑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5.70 (+9.84)
- ▼ 금리 (국고채 3년) 2.05% (-0.01)
- ▲ 코스닥 601.41 (+8.46)
- ▲ 환율 (USD) 1097.70원 (+8.80)

한전 작년 영업이익 5조7876억 ... 281% 늘어

매출액 57조 ... 6.4% 증가

연료비 감소로 실적 크게 향상

한국전력의 지난해 실적이 연료비 감소에 힘입어 크게 향상됐다. 이익이 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7천876억원으로 전년보다 281.0% 늘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7조4749억원으로 6.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조7990억원으로 1505.8% 급증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무엇보다 연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료 단가가 한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높아지고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덕

분에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료비는 전년보다 3조6천52억원(14.9%) 줄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판매수와 국내외 투자회사들의 자본법 평가 이익이 증가한 것도 실적 개선폭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전기 판매수익은 전년보다 2조4550억원(4.9%) 늘었으며, 자본법 평가이익은 2116억원(719.7%) 증가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98.6%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02.3%보다 3.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감소가 실적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순이익 증가로 자본이 늘어나 재무구조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설연휴 백화점 1~2일 쉬고 대형마트는 영업

설 연휴기간 백화점은 설 당일을 포함해 1~2일간 쉰다. 대형마트는 설에 대부분 문을 열고, 연휴 끝 자라한 22일(일요일)에 쉬는 점포가 많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전날(18일)과 당일인 19일 이틀간 휴업하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설명절 기간 정상영업한다.

지역 백화점들은 또 설을 앞두고 일제히 연장영업을 실시, 설 선물 막바지 판촉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1일부터 17일까지 평일 영업 종료시

간인 저녁 8시에서 30분을 연장해 영업한다. 광주신세계는 16~17일 양일간 30분 연장영업을 실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종전 주말 영업 종료시간과 동일하게 저녁 8시 30분까지 연장 영업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역 이마트는 설 명절 기간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광주·전남 모든 점이 정상 영업한다. 다만 설 당일 영업을 실시, 설 선물 막바지 판촉에 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설맞이 전남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열렸다. 설을 앞둔 11일 광주시 동구 KT빌딩 앞에서 제수용 밥, 꽃감, 과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맞이 전남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가 문을 열었다. 농협 직거래 장터는 13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고용시장 여전히 ‘찬바람’

광주 고용률 5개월 연속 하락 57.4% ... 전남은 50%대로 떨어져

새해 들어서도 광주·전남 지역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여전하다. 광주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며, 전남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50%대로 내려앉았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1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의 고용률은 57.4%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고용률은 지난해 8월 59.4%를 기록한 이후 9월 58.9%, 10월 58.5%, 11월 58.4%, 12월 57.6%를 기록하며 5개월 연

속 하락했다. 취업자는 7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00명(0.3%)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만1000명, 0.0%), 도소매·음식숙박업(18만명, 8.3%),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1000명, 3.2%)은 증가했으며, 광공업(10만9000명, -3.3%), 건설업(7만1000명, -3.4%), 농림어업(1만3000명, -37.3%)은 감소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2.6%의 고용률을 기록한 후 11월 62.2%, 12월 60.1%, 1월 58.9%로 3개월

연속 고용률이 하락했다. 취업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6000명 증가(1.9%)였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만7000명, 1.2%), 광공업(9만7000명, 17.8%), 건설업(7만7000명, 7.4%)은 증가했으며, 농림어업(21만2000명, -1.0%), 도소매·음식숙박업(17만2000명, -2.3%),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8000명, -0.8%)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증가(18.5%)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설 앞두고 공사 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

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1개, 1조6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9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1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현상이 없도록 지난달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새얼굴

“지역민·지역 중기 금융지원 확대”

김한중 한은 목표본부장



“지역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한중(53) 한국은행 목표본부장은 “지역민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 특화사업 그리고 경기부진 업종에 속한 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지역

경제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실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충남 대덕 출신인 김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1987년 한국은행에 첫발을 내딛은 후 경기경제조사팀장, 예산회계팀장, 인사경영국 준법관리인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6.25대 안리는 안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 소장수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안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엔 맞출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